지역 소식통

고창군,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고창군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가 주관하는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힘내라 고창군!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요!!'를 주제로 13일 열었다.

행사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노인 14명과 노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일선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와 재능기부자 등 총 26명을 표창했다.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품을 후원해 행사를 더 풍성하게 했다.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정기수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니 활력있는 삶을 유지하기"를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상설시장 식당 13곳 상차림비 자발적 인하

부안상설시장에 입점한 식당 13곳이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상차림비(이용객이 음식재료를 사오면 먹을 수 있게 기본상을 차려주는 요금)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귀감이 되고 있다.

부안상설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부안상설시장 입점 식당 13곳이 논의를 통해 13일부터 상차림비를 1인당 5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씩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식당상인들은 최근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오수처리시설 완공 등 쾌적한 시장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용객들이 더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차림비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부안상설시장 상인회장은 "식당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 상차림비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는 시장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된 만큼 많은 이용객들이 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읍시, 새암로 환경개선 나서… 편리함·안전 지역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시민 창안 300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경관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 창안 300거리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샘고을시장과 시기 성당, 우암 태평로 등 3개 거리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명품특화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 창안 300거리는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창안해 낸 이름으로 원도심 내 3개 거리가 각각 100년 이상 된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예전에는 정읍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거리였으나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시민 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에는 국비 32억, 시비 32억으로 총사업비 6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9부터 쌍화차거리 경관개선사업과 우암 태평로 지중화사업, 청년창업챌린지숍 신축 등을 추진했으며 오는 11월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끝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새암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양수산부 2021년 우수해수욕장' 선정

부안 변산해수욕장, 코로나19방역·무료 구명조끼 대여 등 높이 평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이 2021년 해양수산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우수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284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만족도, 방역, 안전, 시설, 환경, 물가관리, 특화노력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충남 대천해수욕장, 강원 속초해수욕장 등 3개 해수욕장이 이름을 올렸다.

변산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 때인 지난 1933년 공식 개장해 1971년 도립공원 지정, 1988년 국립공원 지정 등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으로 정평이 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이 2021년 해양수산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이후 20여년을 국립공원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시설이 낙후돼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지난 2003년부터 국립공원이 차츰 해제되고 2015년부터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명품 관광지로 변모해 올해 우수해수욕장의 영예를 안았다.

변산해수욕장은 평가에서 출입가능한 도로 3곳에 방역초소를 운영해 모든 출입차량에 대한 발열검사와 안심콜 등록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완벽한 방역관리를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명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 각종 구명장비와 안전관리요원 24명을 주·야로 배치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수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4000여벌의 구명조끼를 구입해 무료로 대여하는 등 안전관리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공모 잇따라 선정

고창군이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집중적으로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하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8억9000만원(국비 14억4000만원, 군비 10억6000만원, 자부담금 3억9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흥덕면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17개소, 지열 10개소 등 총385개소가 확정돼 내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설비 설치비의 14%정도 부담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후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사업 신청 평가를 준비해 융복합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구. 지역지원사업)'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만돌마을 계명산 아래. 풍년 기원제에 나온 한 어르신이 서해 용왕께 빌며 큰절을 올렸다.

'맛있는 고창김 풍년기원합니다'

고창 심원면 만월어촌계·고창수협, 김 풍년 기원제

"서해 용왕님, 김발에 포자가 딱 붙어 올해 김 농사 풍년 들게 해주세요"

고창 만돌마을 계명산 아래. 풍년 기원제에 나온 한 어르신이 서해 용왕께 빌며 큰절을 올렸다. 마을에 굴뚝 만 개가 솟아 흥할 곳이라는 이름의 '만돌' 마을에 굴뚝 대신 대나무로 만든 김 지주가 만개 이상 꽂혔다.

13일 오전 고창군 심원면 만월어촌계와 고창수협이 공동으로 마을의 안녕과 김 어장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이봉희 고창군의회 의원, 성경찬 전북도의원, 김충 고창군 수협 조합장, 김현술 만월어촌계장과 지역어민들이 참석했다.

어촌계는 매년 10월 중순께 풍년기원제를 열고 김 포자(胞子)가 든 굴껍데기를 그물망에 매단다. 열흘 정도 지나면 붉은색 포자가 엉겨 붙고, 한 달 쯤 지나면 머리카락처럼 가는 다란 김이 김발(그물망)에 가득 자란다. 12월 초 첫 채취를 하고, 이후로 20여일 간격으로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만돌 갯벌에서 1623년 시작된 전통의 김 양식법이다.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발을 노출 시켜 김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국내의 0.1% 소량만 생산되는 명품 중의 명품 김이다.

특히 지난 2월 서해안권 최초 '친환경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기도 했다. 군과 어촌계는 향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먹거리, 바른먹거리 생산에 노력해 프리미엄 김 상품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댄스스포츠 선수단, 전국체전서 '금메달'

제102회 전국체육대회(10.8~10.14)에 출전한 정읍시 댄스스포츠 선수단이 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체전 댄스스포츠 종목에 출전한 김대현(17 배영고) 선수와 윤희진(18 서영여고) 선수는 라틴 5종목에서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구미시 선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부분에 총 15개팀, 30명의 선수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김대현, 윤희진 선수는 쌈바와 차차차, 룸바, 자이브, 파소도블래 등 라틴 5종의 아름다운 율동과 멋진 호흡을 과시하며 2위 제주도와 3위 경기도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7년 처음 팀을 구성한 두 선수는 방과 후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을 쌓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해마다 각종 국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정읍=김대환 기자